

목어 배려하는 지도층 그림다



혀 아무개라고 하는 잊지 못할 목사님이 한분 계시다. 그 분을 잊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가지만 소개한다.

80년대초였다. 그는 나에게 자기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 달동네 그의 작고 허름한 교회에 와서 불교 이야기도 좋고 인생이야기도 좋으니 신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는 것이다. 나는 기꺼이 그의 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화답해 주었다.

또 한번은 혀 목사님 교회 신자인 건달기 있는 어느 청년이 사석에서 술에 취해 내게 시비를 걸자 목사님이 두 팔을 걷어붙인 채 그를 무력으로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도 있다. 그것이 나에 대한 그분의 배려였던 것이다.

남에게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목사든 아닌 부처님처럼 존경하는 마음이 샘솟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자상징 아닐까.

요즘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보고 있노라면 실망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그들이 남에 대한 배려보다는 오히려 아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아 보여서다. 대선후 보 경선에 나선 사람들의 연설을 들어보면 상대 당이 아닌 자기 당 사람들 끼리도 흠집내기엔 열안이 되어 있는 느낌이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 역시 내 종교만 믿으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식의 환상에 사로잡혀 타종교를 깎아내리는 순교적 노력의 야욕이 아직도 많은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많은 지식인들 역시 아집에 빠져있기는 마찬가지다. 단적인 예로 한자교육 병행을 반대하는 한글학자는 많지도 찬성하는 한글학자도 아기를 나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듯 상대를 배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는 아집과 어리석은 욕심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을 많이 차지할수록 우리나라의 미래는 그만큼 어두운 수밖에 없다.

지도층 인사가 되려면 어느 분야에 몰두하고 있던 남을 배려하는 마음부터 가꿀 일이다.

도수(정업도량 회주, 본지 논설위원)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이제 각 나라들은 세계인에게 문화관광을 체험하는 곳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과거 경제적 가치에 비중을 둔 '쇼관광'이 이제는 정신적 가치에 비중을 둔

를 들어본 적은 없다. 우리의 무관심과 무성의가 아직도 이 문제를 덮어두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여행지에서 서로 악감의 불친절하고 악감의 바가지 씌우는 것은 애교(愛交)로 봐 줄 수도 있겠지만 표지판 누락이나 잘못 그려진 지도로 곤욕을 치르는 일은 여행자에게 애교가 아니라 애태우는 일이 된다.

앞으로 월드컵경기와 같은 각종 큰 직한 국제행사 등 세계화과정에서 팀

사람을 다녀온 일이 있었다. 그곳에서 푸른 눈의 외국인이 드문드문 보였는데, 그들은 한 표지판에서 고개를 가우뚱거리고 있었다.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잘 알려진 사찰이 이런 상태라면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은 더 말할 것도 없으리니 생각하니 한심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목적여행, 심층여행, 테마여행 등이 세계의 문화관광인들에게 인기를 얻을 추세고 보

의 소재가 무엇이나에 따라라도 그 사찰의 심미적, 환경적 평가가 달라지고 그것이 문화수준을 가능하는 것대로 작용된다. 번들거리고 야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표지판과 중후한 청동판에 음각으로 멋을 낸 표지판은 아만과 문화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현격히 보여준다. 고급골동품상의 문화재란 소리는 들지 못하더라도 싸구려시장의 조악풀이한 느낌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스님들의 가사와 발우가 나일뿐이나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고 왜 연이나 나무인가를 생각해보면 짐작할 일이다. 들은 다르지 않다.

안내판이나 표지판의 새로운 손질, 거기에 들어있는 상세하고도 친근한 여행정보, 어울리는 적절한 소재의 선택, 면밀한 제작과 잘 구성된 디자인, 크기·비례가 주는 각 요소들의 조화, 이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이행할 때 템플스테이는 한국전통문화 체험의 하나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박규현
대구대 교수
미술학

사찰 안내판 세심한 배려 필요

불친절 때문일 수 있겠고, 바가지 요금 때문일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여행자의 기호에 따른 맞춤형여행상품이 개발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안내 표지판의 무성의와 상세하지 못한 세부지도, 그리고 목적지 표지판의 표기누락으로 인한 여행의 곤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TV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번 다루었지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얘

플스테이는 각광받는 문화체험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들이 속박만 하고 가는 것은 아니다. 사찰주변을 돌아보고 곳곳에 소개된 우리의 유물·유적에 대한 안내상태를 보고 그들은 우리의 문화수준을 가능하게 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전통사찰에 있는 안내판과 표지판의 상태는 어떠한가? 얼마 전 외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면 우리의 사찰 하나 하나가 모두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루 빨리 안내판과 표지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사찰에서 만드는 안내약도의 경우 대응 어렵짐작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확성을 따지는 서양인들에게 거리, 축차, 방향, 위치를 상세하게 표시한 후 반드시 영어를 병기해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사찰을 홍보하고 알리는 표지판이나 주변 설치물

열린 마당

종교 NGO의 사회적 역할

부산 청정화합시민연대(상임대표 정각)는 18일 NGO 운동 속에서 종교NGO의 위상과 그 역할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기초발제를 맡았던 정천구 교수와 지정토론회자인 김민남, 강호일 씨, 도관스님의 글을 통해 바람직한 종교NGO의 모습을 알아본다.

종교 NGO운동 방향

정천구(영신대 교수·정치학) 80년대 끝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NGO 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종교NGO 운동도 이와 함께 성장해 한국사회의 문제해결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종교NGO운동이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발전 방향이 필요하다.

신앙 바탕 대중보살운동 절실

적극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이 뒤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종교NGO운동의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일반NGO운동의 쟁점 이외에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개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신행 활동은 전혀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는 행태가 변해야 할 것이다. 신행생활과 일상생활은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서로 보완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의 현실참여

김민남(동아대 언론홍보대학원장)



대상·방법등 충분한 연구를

시민운동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에 있어 종교가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직도 참여의 대상, 수준, 방법 등에서는 종교 내외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종교는 인간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물음 이요 대답이라는 점에서 개인적, 사회적 문제해결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불교는 수행을 통해 집착을 버리고

편견과 독선을 벗어나는 물아일체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시민운동의 기본 정신을 제공해준다. 이런 점에서 불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이제 불교를 비롯한 종교는 교리와 신앙에 투철하면서 시민운동의 저변확대, 지속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특히 사회의 중요한 이슈나 아젠다뿐만 아니라 건강, 노인, 여성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분야로 관심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종교 NGO 네트워크 역할

강호일(부산일보 논설위원)



대중·종교인 공감대 형성 중요

비정부 시민단체인 NGO의 활동은 전국에서 2만여개의 신생단체가 생겨날 정도로 급성

장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 NGO 운동에 거는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종교 NGO 단체들의 자정 노력과 자립도 확보는 필수적 과제다.

여기서 우리는 세속화, 상업화된 한국 종교의 개혁을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한 종교NGO네트워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종교NGO네트워크는 많은 종교를 위한 실천강령을 통해 종교시민운동의 방향을 구

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종교지도자들의 부정부패와 일반 종교인들의 근사한 종교행위를 극복하는 자기정화 노력을 시작한 것이다. 종교 재정의 투명성 확보, 경제적 빈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기부문화 정착 등 물량주의로 흐르는 종교문화를 쇄신하는데 주안점을 둔 이들의 움직임은 종교시민운동의 지향점을 제시해 준다.

이처럼 종교계가 시민운동에서 제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종교계의 내부적 자정노력을 통해 일반 대중들과 종교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불교와 사회참여

도관스님(불교인권위 사무국장)



사찰이 시민운동 중심대야

종교시민운동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교시민운동의 태동 계기를 살펴볼 필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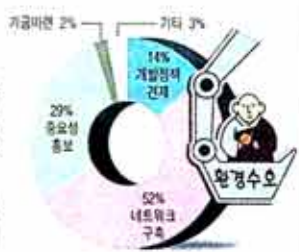
있다. 베트남의 파고다운동이나 만해스님의 대한불교청년회, 혁명불교연맹 등이 국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했듯이 초기불교의 혁명성을 현대적으

로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5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불교NGO협의체에서 주장하듯 사찰은 하나의 비정부기구로서 지역사회에서 시민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각 사찰이

지역내에서 봉사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관 역할을 하면서 사찰 재정, 인재, 공간 등을 대사회적으로 회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성숙된 시민의식 속에서 불교종교시민운동이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불교적 생명권이나 세계관을 토대로 대중성 이념성을 확보해야 한다. 불교적 진리가 종교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불로 짜여질 때 여성, 환경, 인권 등 보다 폭넓은 시민운동으로 폭을 넓혀가며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불자의 생각

사찰환경 수호



불교환경운동의 네트워크 구축이 사찰 수호 환경을 수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로 밝혀졌다. 103명이 참여한 본지 뉴스 네트즌 설문에서

“환경운동 네트워크 구축” 52%

사찰의 수호환경 수호를 위해 불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54명(52%)이 이같이 응답했다. 이와 함께 30명(29%)이 사찰환경의 중요성 홍보를, 14명(14%)이 정부 및 지자체의 개발 정책 견제가 필요하다고, 2명(2%)이 환경운동 기금 마련을, 3명(3%)이 기타라고 답했다.

불교환경 단체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는 질문에 92명(89%)이 있다, 11명(11%)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연태 기자

달마선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범주스님 달마도 청자·백자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드립니다.

30여년 참선과 선목을 정진해오시고 20여회 자선 전시회를 열어 불우한 이웃을 위해 자비를 베풀어 왔던 한국 최고의 달마도 대가이신 범주스님께서 속리산에 열린 대중선원 달마선원 건립 불사를 위하여 금번 순금반야심경 달마청자와 백자를 조성하여 건립 불사가 회향 될때까지 많은 불자들의 동참과 포교 차원의 가격으로 모셔드립니다.

더불어 호신불 달마순금 카드와 불자집안에 가훈이 될 수 있는 범주스님 친필글 1점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 기를 가진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 줍니다.

범주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달마도자기를 소장하고 선원 건립불사동참의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속리산 달마선원 건립 불사위원회 합장

※ 온라인으로 송금해주시고 연락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연 락 처 : 불사위원회 - (대) 02-424-9901
달마 선원 - 054-535-0378
- 온라인번호 : 제일은행 100-10-018794
(달마선원)



달마청자 중(꽃만)



달마백자 중(약만)



달마청자 대

작품 가격

- 달마청자 대(43.5cm x 31φcm) 25만원
- 중(37.5cm x 35φcm) 20만원
- 달마백자 대(43.5cm x 31φcm) 25만원
- 중(37.5cm x 35φcm) 20만원